

핵폭탄급 인기 신드롬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미니시리즈 시청률 30% 돌파

中 누적 조회수 11억 건 돌파, 日 20억 판권 수출

OST, 8개 음원차트 올킬... 실시간 줄 세우기

SNS 클립영상 조회수 백만 건 거뜬히 넘겨

인기 고공행진 중인 <태양의 후예>가 방송 직후마다 매 순간 자체 기록을 갈아치우며 신드롬을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태후앰으로 2~3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들썩이고 있어 국민 드라마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정도다.

지상파 미니시리즈 시청률 30%, 그 어려운 길 해냅니다!

첫 방송 시청률 14.3%(닐슨코리아/전국 기준)를 시작으로 매회 가파른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며 지난 23일 방송된 9회 시청률은 30.4%를 기록했다. 2010년 <제빵왕 김탁구> 이후로 6년 만의 쾌거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매력 발산 하는 게 <태후>의 원칙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태후>의 인기는 대단하다. 동시방송 중인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에서 <태후>의 9회까지 누적 조회수는 11억 건을 넘었다. 또한 중국 판 트위터 웨이보의 키워드 누적 조회수는 17일 현재 40억 건을 돌파했다. 이렇다 보니 중국 공안은 송중기 상사병 주의보를 내렸을 정도다. 또한 <태후> 16부작은 일본에 회당 10만 달러로 판권 수출됐다. 이는 한화 20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과연 <태후>가 제2의 <겨울연가>로 일본에서의 한류 붐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귀에 착~ 감기는 OST로 음원차트 역시 올킬하고 있지 말입니다!

드라마 삽입곡,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윤미래의 'ALWAYS', 케이윌의 '말해 뭐해?' 등이 8개 음원차트에서 위력을 떨치며 올킬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는 18일 오후 2시 현재 공개된 6곡이 1위부터 6위까지 랭크되며 줄 세우기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타 음원사이트 역시 <태후> OST가 TOP5를 점령해 치열한 집안싸움을 벌이는 중이고 남은 4곡 역시 음원차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크다.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설레요. SNS 영상 클릭하기 바로 직전.

모바일, SNS에서도 난리난 <태후>는 KBS 페이스북의 관련 동영상 도달률이 기본 백만 건을 훌쩍 뛰어 넘는다. 인기 있는 예능과 드라마 도달률이 15만 건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또한 굿데이터퍼레이션이 발표하는 '주간 화제성 순위' 드라마 부문에서도 화제성 점유율 23.1%, 24.6%, 30.7%, 43.1%를 기록, 4주 연속 1위를 차지해 <태후>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인간 넘어서선 인공지능 시대 미리 대비해야



감동근 교수
(現)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前)IBM 왓슨 연구소 연구원
한국기원 공인 아마 5단



인공지능 ‘알파고’, 인간 넘어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은 알파고의 4대 1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 동안 이 분야에 헌신한 모든 연구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1956년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이래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쌓아 올린 연구 결과가 마침내 가장 재능 있는 인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로써 바둑과 같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목표와 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라면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을 인간이 갖게 됐다.

이세돌 9단, 챔피언의 품격 보여줘

이세돌 9단에게도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마치 ‘인간 두뇌의 최후의 보루’가 된 것 같은 압박감, 누적된 피로, 낯선 상대 등 최악의 조건에서 3연패를 당하면서도, 불굴의 정신력으로 도전하여 마침내 4국을 따내는 장면은 챔피언의 위대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최종국에서 이세돌은 중국룰에서 불리한 흑을 일부러 선택하고, 알파고의 약점을 노리기보다는 서로 최선의 바둑을 뒀을 때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존엄한 선택이다. 중반까지 승기를 잡다가 인간이기에 한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서 결국 패했지만,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챔피언의 품격도 보여줬다.

인공지능에 자의식 탑재는 회의적

알파고 다음에는 컴퓨터가 자의식까지 갖게 되어 인간을 지배하려 드는 시대가 곧 펼쳐질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는데 여기 설득력 있는 반론을 소개한다. 컴퓨터는 최소한 세상을 접수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프로그램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번식 가능한 모든 공간을 접수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있다. 우리가 이보다는 컴퓨터를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영화적 상상력은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누군가의 의도로 인공지능에 자의식을 심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자의식의 구조와 작동 방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그보다는 약한 인공지능이 충분히 연결됐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지(특히, 컴퓨터가 숨기려고 할 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영화적 상상력은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누군가의 의도로 인공지능에 자의식을 심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자의식의 구조와 작동 방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그보다는 약한 인공지능이 충분히 연결됐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지(특히, 컴퓨터가 숨기려고 할 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도입 부작용 미리 차단해야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보다 훨씬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 우선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도입되면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과거에 열 명이 하던 일을 한 두 명이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공지능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 부자들은 다수의 인공지능을 구입해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지능적이 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보탬이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정부는 또다시 얼마를 투자해서 단기간에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세계 몇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관련 업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한국형 운영체제 K도스, 한국형 유튜브 K튜브 등 수많은 사례들이 떠오르게 걱정이 앞선다. 우리에게도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 정부는 이들이 연구에 매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하는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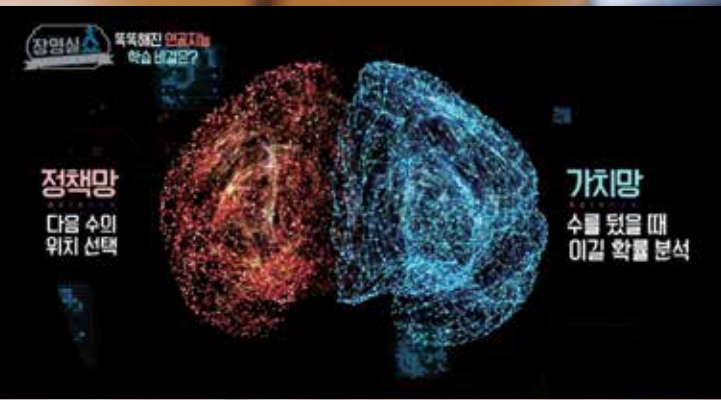
차분히 인공지능 시대 준비해야

우리는 컴퓨터와 구별되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객관식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일에서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인간이 컴퓨터보다 뛰어난 점은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상상력(想像力)을 직역하면 어떤 모양을 떠올리는 능력이다.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가 최고다. 창의적인 생각은 멍하니 있을 때 많이 나온다. 구글이 막대한 광고 효과를 누렸지만 우리도 전 국민이 인공지능의 위력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인공 지능의 세계 탐구

‘알파고’ 특집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KBS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가 인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계와 인간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특집을 편성해 방영했다. <KBS 스페셜-인공지능, 인간을 이기다>(3월 11일)에서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통해 인간에 근접한 인공지능의 역할과 의미, 다가올 미래를 알아봤다.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인공지능,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3월 13일)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기술적, 윤리적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뤄 호평을 받았다. <특별대담 인공지능 인류를 넘나>(3월 15일)에서는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감동근 아주대 교수가 출연해, 알파고를 통해 본 인공지능의 세계와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다. 또, 특별 앙코르인 <사사기 획 창-로봇혁명 미래를 바꾸다>와 영화 <그녀(Her)>를 긴급 편성하는 등 ‘알파고’로 촉발된 인공지능을 탐구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5차례나 편성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대안을 제시했다.

‘세기의 바둑’ 대결 KBS 중계 시청률 압도적 우위

KBS는 바둑 최고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 5국 가운데 4차례의 대국을 중계방송해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KBS의 4국 중계는 시청률이 10%를 기록했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유일하게 동시 중계한 5국의 시청률(닐슨코리아/전국 기준)은 KBS가 7.8%, MBC 2.5%, SBS 2.0%로, KBS의 시청률이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 바둑 중계에서도 KBS의 채널 경쟁력이 확인됐다. KBS의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인 ‘my K’도 대국 전 경기를 이원방송으로 생중계 했다.



확~달라진 여성 리얼 버라이어티! * <언니들의 슬램덩크>

4월 8일 (금) 밤 11시, 2TV 첫 방송!



KBS 예능이 달라졌다. 관례를 깨고 파일럿을 통하지 않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바로 편성되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소재나 기획 면에서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를 보이며 남성 위주의 버라이어티에 도전장을 내민다. <박2일> 시즌 3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박인석 PD와 지현숙 작가가 다시 뭉쳐 여성버라이어티로 예능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려 한다.

이루지 못한 꿈의 두 번째 기회를 잡아라!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방송 문화계 6인의 여성 멤버들이 꿈에 투자하는 계모임 ‘꿈계’에 가입하면서 펼치는 꿈 도전기이다. 멤버들은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동반자겸 조력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예측불허의 사건·사고와 웃음이 프로그램의 개그 포인트로 시청자들에게 빅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겉크러쉬~ 여자들도 좋아하는 호감충만 여섯 언니들

‘라미란, 김숙, 홍진경, 민호린, 제시, 티파니’ 요새 가장 핫하고도 센 언니들을 모았다. 배우, 개그우먼, 아이돌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를 아우르며 여자들조차도 팬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녀들만의 개성만점 매력을 매회 방출할 예정이다. 입담 좋다는 김숙, 홍진경을 필두로 한마디씩 톡톡 빼 있는 개그를 던지는 라미란 왕언니. 새침한 외모 뒤에 가려진 수다스러운 모습의 민호린, 제시, 티파니가 보여줄 신선하고도 새로운 즐거움이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 줄 것이다. 남성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좀 식상해진다면, 지금부터 각양각색 장점을 지닌 여섯 언니들이 주는 참신하고도 유쾌한 웃음 바다에 흠~뻑 빠져보자.



청년 대한민국

KBS가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내집, 희망, 꿈을 포기하고 급기야 포기한 것을 셀 수 없는 ‘N포 세대’.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KBS는 이런 청년들 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청년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 홈페이지에서 만나는 <2016 청년 리포트> 시리즈

KBS 디지털뉴스국은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2016 청년 리포트> 시 리즈를 마련해 KBS 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청년 리포트 1부 ‘아픈 청춘’을 말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사회라는 현 실적 제도에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희 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배우는 청년들 에게는 이 말도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직장 구하기’에 청춘을 바치고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을 만나 그들의 애환과 고민, 해법을 보여준다.



청년 리포트 2부 청춘 ‘완생’을 말하다

‘은행 고졸 채용 5년 그 후’와 ‘공기업 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삼 국지’ 등을 통해 아픈 현실을 담고 일 어서려는 젊은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 청년층의 공감을 얻고 있다.



<다큐공감-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청년 CEO 황태일>

방송 : 3월 12일(토) 오후 7시 15분, 1TV

<KBS 다큐공감>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 미국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한 한국 청년 황태일을 통해 청 년들에게 도전을 통한 성공의 방법을 제시했다.

올해 24세인 황태일은 2014년 친구 2 명과 함께 ‘피스컬노트’를 창업한다. ‘피스컬노트’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미 국의 법률 내용과 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검색해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피스컬노트’는 설립 3년만에 2천만 달 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황태일은 “달라져야 할 것, 바꾸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그 목 표를 이뤄가는 과정이 곧 청년의 길”이 라 말하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면 꿈을 이룰 것”이라고 요즘 청년들의 분 발을 촉구했다.



본격 역사 토크쇼 그날 역사저널

역사를 움직인 ‘결정적 하루’를 만나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지 2년 만에 고종의 늦둥이로 태어난 덕혜옹 주. 왕가의 핏줄이지만 일제에 의해 왕실에 입적하지도 못했고, 일 본인과 정략결혼을 하게 된다.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 는데... 3월 20일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의 비극적 인 이야기가 펼쳐졌다.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은 역사가 움 직인 ‘그날’로 우리를 인도한다.

교양과 재미, 그리고 역사교육까지

<역사저널 그날>은 교양과 재미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표방한다. 교수, 교사, 시인, 그리 고 영화감독까 지 다양한 패넌 들이 그들의 관 점에서 역사를 풀어간다. 다 소 지루할 것 같은 역사 이야기를 세련된 구성과 편집을 통해 젊은 시청자 층까지 사로잡았다. 특히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 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역사저널 그날>이 역사 교육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21일 대한민국교육공헌대 상 조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2016년 대한민국교육공헌 대상-방 송교육공헌부문’을 수상했다.



지상파 유일의 역사 프로그램

현재 지상파 3사 중 드라마를 제외 한 역사 프로그램 은 KBS의 <역사 저널 그날>이 유 일하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민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 는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다. <역사저널 그날>은 KBS 방송문화연 구소가 만 6천여 명의 국민패널을 이용한 ‘2015년 하반기 시청자품 질평가’ 부문에서 최고 품질 프로그램으로 평가됐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 1TV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품격 콘텐츠 제공할 것이다”

Q 작년 <슈퍼차이나>, <요리인류>, <넥스트휴먼> 등의 대기획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기대할만한 명품 다큐멘터리를 소개해달라?

A <KBS 스페셜>을 부활해 중국 CCTV와 공동으로 임진왜란을 국제사적 시각으로 새롭게 재조명하는 다큐를 추진하고 있다. 또, 최첨단 UHD 영상복원으로 1,000년 전 신라를 조명하는 <천년왕국의 부활>과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40억 아시안 파워를 심층 해부하는 <슈퍼아시아>도 제작중이다. 기획 제작국에서는 올해 25편의 UHD 다큐멘터리와 29편의 고품질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종가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한해가 될 것이다.

Q <명견만리>는 새로운 포맷으로 정보 제공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명견만리>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명견만리>는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이슈를 렉처멘터리(Lecture+Documentary)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명견만리>에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다가올 미래 이슈에 대해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측하기 힘든 미래 이슈에 대해 불안감을 높이기 보단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Q 기획제작국에서는 제작진이 기획 단계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효과를 평가해 달라?

A 기획제작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디지털 혁신을 위해 '컨티 뉴잉 데스크'라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제작진이었던 PD가 방송 프로그램을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전략을 방송 제작과 동시에 짜고 있다. <명견만리>의 경우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도달(콘텐츠 노출)이 누적 340만 명, 참여(댓글, 공유, 좋아요)가 240만 명을 넘고 있다. 작년에 비해 800% 높아진 수치다. 두 달여의 짧은 시간이지만 기획제작국의 디지털 혁신은 콘텐츠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초석을 쌓는다고 볼 수 있다.

Q 기획제작국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공영성 강화 계획은?

A 기획제작국은 수신료 제도의 정당성을 시청자들에게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부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품격 콘텐츠로 제작해 시청자에게 선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기획제작국의 임무이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다’

명견만리 (明見萬里)

미니홈피 열풍을 일으켰던 소셜네트워크(SNS) 싸이월드의 창업자 이동형 대표가 '청년 창업'에 대해 열띤 강의를 한다. '미래참여단'으로 불리는 방청객들의 예리한 질문이 이어진다. 스튜디오는 어느새 방송녹화장이 아닌 토론의 장이 되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간다. 3월 18일 방송된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젠테이션 쇼 <명견만리>의 현장이다.

강의와 다큐의 만남

렉처멘터리(Lecture+Documentary)

<명견만리>는 렉처멘터리다. 강의와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새로운 장르로 다큐멘터리를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포맷이다. 유명인사가 출연해 우리사회의 이슈들을 영상과 강연의 형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고민한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걸맞게 다뤄지는 내용 역시 경제, 사회, 환경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들이다.

<명견만리>의 힘 ‘소통’

<명견만리>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것은 시청
자들과의 소통이다. ‘미래참여단’, ‘미래참여단 서포

터즈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명견만리>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해 나간다.

‘미래참여단’은 방송에 참여만 하는 ‘방청객’이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의 강의를 평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또, 자발적으로 온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토론을 이어나간다.

‘미래참여단 서포터즈’는 프로그램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외국어 자막 버전 등을 제작해 해외 시청자들과 공유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명견만리>와 함께 미래를 생각해 보자.

참신한 소재, 다양한 장르, 감각적인 실험과 시도로 무장!

강한 임팩트! 연작극 <페이지터너>, <베이비시터>



봄바람을 타고 매력적인 연작극 두 편이 찾아왔다.

짧지만 강한 임팩트로 KBS 드라마의 자부심이 된 연작극 <페이지터너>와 <베이비시터>를 소개한다.

싱그러운 청춘의 꿈을 말하는 청춘 3부작 <페이지터너>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다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페이지터너. '무대 위의 유령'이라 불리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연주자와 호흡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다. 청춘 3부작 <페이지터너>는 우리 인생에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어 좌절하고 있는 순간, 그 페이지를 넘겨주는 누군가처럼 서로의 선생이 되어주며 성장하는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 꿈을 그린다.



눈과 귀가 즐거운 드라마

<페이지터너>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장대높이뛰기 선수의 하늘을 가르는 역동적인 모습과 피아노의 풍부하고 감성적인 선율이 어우러질 전망이다.

청춘 라이징스타 총출동

청춘 3부작답게 톡톡 튀는 매력으로 뽐낼 땀 흘린 청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도도하고 까칠한 성격과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이는 피아노 천재소녀 윤유슬 역에는 김소현이 맡았다. 그녀와 호흡을 맞출 정차식 역은 지수가 맡았다. 차식은 부상으로 장대높이뛰기 선수를 접었지만 엄마의 거짓말로 천재성을 믿고 피아니스트의 새 꿈을 키우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죽어라 연습하지만 만년 2등이자 감성이 아닌 머리로 피아노를 치는 서진목 역은 신재하가 맡아 유슬과 대립하는 질투어린 모습을 연기한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지긋지긋한 피아노와 엄마로부터 탈출한 유슬, 아버지의 유전자만 믿고 덜컥 피아노를 시작한 차식, 늘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진목... 이 세 사람이 보여줄 가슴 뛰는 청춘 이야기를 기대해 보자!

▶ 3월 26일 (토) 밤 10시 35분, 2TV 첫 방송!



파격 전개, 신선한 충격 안긴 미스터리 멜로 4부작 <베이비시터>

인간의 욕망과 질투에 화두를 던지다

<베이비시터>는 상류층 부부의 행복한 인생에 파고든 수상한 베이비시터를 통해 주요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복잡 미묘한 심경변화를 치밀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표현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리고 살던 가정주부 천은주(조여정 분)는 하루아침에 남편 유상원(김민준 분)과 베이비시터 장석류(신윤주 분), 상원의 친구이자 석류의 남편인 표영균(이승준 분)을 잔인하게 죽인다.

<베이비시터>는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추악한 진실을 추적하며 은밀하고 위태로운 삼각관계를 통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질투에 대한 화두를 던진 실험적인 드라마다.

뛰어난 영상미, 완성도 높은 각본, 감각적인 연출로 눈길 끌어

3월 1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4부작이 방송된 <베이비시터>는 술한 화제를 뿌렸다. 파격적인 소재가 지상파 밤 10시대 방송으로 적합한지의 논란이 있었지만 뛰어난 영상미와 연출력으로 인물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빠르고 숨 막히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베이비시터>는 극본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제작해 완성도 높은 대본으로 방송가에서 입소문이 났던 작품이다. 여기에 <적도의 남자>를 연출한 김용수 감독 특유의 뛰어난 영상미와 감각적인 연출력이 더해져 섬뜩한 극 분위기를 돋웠다.



광고주 초청 프로그램 간담회 개최

KBS는 3월 2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장 등 광고주 70여 명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KBS는 이 자리에서 KBS의 주요 정책방향과 2016 2TV 프로그램 라인업, 리우 올림픽 방송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KBS, 한국PD대상 5개 부문 수상

KBS 프로그램이 제28회 한국PD대상에서 5개 부문을 수상했다. 광복 70년 특집극 <눈길>이 TV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TV독립제작 작품상에는 <다큐공감-엄마와 클라리넷>이, TV지역정규 작품상에는 춘천총국의 <올댓뮤직 200회-200&20 2부작>이 선정됐다.



<명견만리> KBCSD 언론상 수상

지난해 7월 방송된 <명견만리-일자리가 사라진다 2부작>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 10회 KBCSD 언론상을 수상했다. KBCSD 언론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식의 확산과 제고에 기여한 작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일자리 전쟁에 대한 해답을 심도 깊게 분석한 점이 인정 받았다.



소셜미디어시대, KBS는?

<KBS 인사이트포럼> ‘소셜미디어시대, 공영방송이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의 강연이 3월 11일 본사에서 열렸다.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알프레도 허미다 교수는 “SNS 등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변화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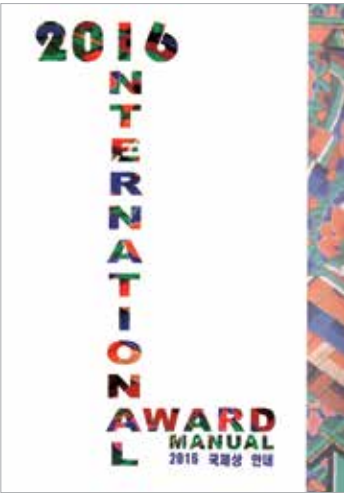
KBS·미래창조과학부, 국산방송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KBS는 3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산방송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사업명: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향상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2016 국제상 핸드북 발간

국제협력실이 『2016년 국제상 핸드북』을 발간했다. 핸드북에는 2016 국제상 소개와 일정, KBS 콘텐츠의 역대 국제상 수상 현황 등을 담고 있다. KBS는 2015년 27개 국제상에 170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광복 70년 특집극 <눈길>의 ‘프리탈리아상’ 수상 등 23건의 국제상을 수상했다.



춘천총국, my K 사업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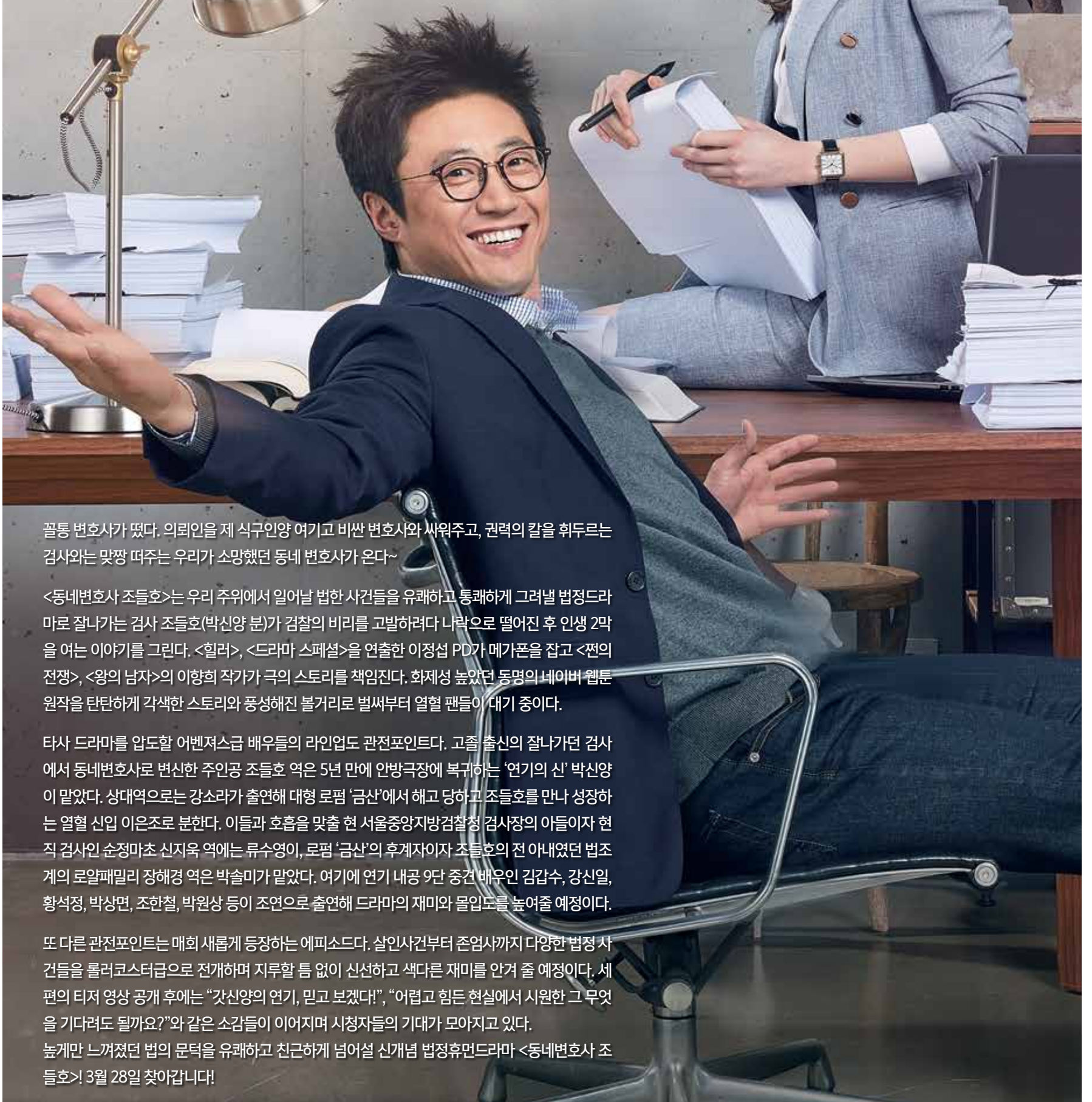
KBS 춘천총국은 3월 17일 강원도내 18개 시·군 관계자를 초청해 my K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KBS는 이 자리에서 my K를 통해 지역축제와 행사 등의 홍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KBS 월화드라마의 신기록을 쓸

동네변호사 조들호

3월 28일(월) 밤 10시, 2TV 첫방송!



꼴통 변호사가 났다. 의뢰인을 제 식구인양 여기고 비싼 변호사와 싸워주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검사와는 맞짖 떠주는 우리가 소망했던 동네 변호사가 온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유쾌하고 통쾌하게 그려낼 법정드라마로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박신양 분)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나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그린다. <힐러>, <드라마 스페셜>을 연출한 이정섭 PD가 메가폰을 잡고 <편의전쟁>, <왕의 남자>의 이향희 작가가 극의 스토리를 책임진다. 화제성 높았던 동명의네이버 웹툰 원작을 탄탄하게 각색한 스토리와 풍성해진 볼거리로 벌써부터 열혈 팬들이 대기 중이다.

타사 드라마를 압도할 어벤져스급 배우들의 라인업도 관전포인트다. 고졸 출신의 잘나가던 검사에서 동네변호사로 변신한 주인공 조들호 역은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연기의 신' 박신양이 맡았다. 상대역으로는 강소라가 출연해 대형 로펌 '금산'에서 해고 당하고 조들호를 만나 성장하는 열혈 신입 이은조로 분한다. 이들과 호흡을 맞출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아들이자 현직 검사인 순정마초 신지옥 역에는 류수영이, 로펌 '금산'의 후계자이자 조들호의 전 아내였던 법조계의 로얄패밀리 장해경 역은 박솔미가 맡았다. 여기에 연기 내공 9단 중견 배우인 김갑수, 강신일, 황석정, 박상면, 조한철, 박원상 등이 조연으로 출연해 드라마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매회 새롭게 등장하는 에피소드다. 살인사건부터 존엄사까지 다양한 법정사건들을 롤러코스터급으로 전개하며 지루할 틈 없이 신선하고 색다른 재미를 안겨 줄 예정이다. 세 편의 티저 영상 공개 후에는 "갓신양의 연기, 믿고 보겠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시원한 그 무엇을 기다려도 될까요?"와 같은 소감들이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높게만 느껴졌던 법의 문턱을 유쾌하고 친근하게 넘어설 신개념 법정휴먼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3월 28일 찾아갑니다!